

광주 각화동 농산물시장 '리모델링'

농식품부, 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

내년부터 2012년까지 486억원 투입

경매장 증·개축, 주차장등 기반 확충

경매장 등 시설이 낡고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해 활력을 잃고 있는 광주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최신 설비를 갖추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거듭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전국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채택됐다.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 사업 설계용역비 6억원이 200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경매장 증·개축, 저온저장시설 확충 등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비 486억원(국비 243억원, 시비 146억원, 융자 97억원)이 순차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 부지 5천㎡를 사들이는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각 50%, 30%

인 국·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해줄 것을 정부 부처와 협의 중이다.



광주시가 사업비 486억원을 투입, 오는 2012년까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각화동 도매시장 전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는 저온저장유통시설을 보강하는 등 유통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위축됐던 각화동농산물 도매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개장한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은 부지 5만 6천여㎡에 전체면적 3만 5천여㎡ 규모로 1일 평균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 가능 대수가 460여 대에 불과한데다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중도

매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각화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우니 대다수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많아 사업이 보류됐다"며 "그러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각화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4조 규모 296개 농어업 정책사업 통·폐합

유사·중복 사업 효율성 떨어지고 지역 실정 반영 못해

정부 개편안 연내 확정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농림수산업 관련 정책 사업들이 대거 통폐합된다.

정부는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들이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업 권한이 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296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 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현재 296개(농림 214개, 수산 82개)에 이르는 농림수산업

의 개편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96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13조9천 549억원이며, 내년도에 14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지자체의 권한 확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같은 내용의 사업임에도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따로 예산이 운용,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되게 된다.

실제 농업·어업인 교육훈련, 수산 인력복지·농어업인복지증진, 농촌마을·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이 모두 따로 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 비슷한 사업은 과

감히 통·폐합하고 사업을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한 뒤 그 범위 안에서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포괄지원방식이 도입될 경우, 전남도는 농림수산 관련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을 선정해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쓰고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금호타이어, 중국 마케팅 펼친다

딜러 초청 중국 공장 견학

'2008 비전 페스티벌' 진행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가 중국시장을 겨냥,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진행중인 북경올림픽과 관련해 타이어 딜러와 기자들을 초청, 천진공장과 중국 연구소 등을 견학해 하는 등 '2008 VISION FESTIVAL'을 적극 진행 중이다. (사진)



활용한 마케팅을 펼친다.

협찬사로 참여한 금호타이어는 '금호타이어컵 카트라이더 그랑프리 대회'를 열어 e-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이벤트로 중국인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중국에 구축된 생산·연구·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내 1위 타이어 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 니즈와 수요를 분석해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jilee@kwangju.co.kr

공장용지 10년간 전매 제한된다

지경부, 산업용 부지 가격 안정·실수요자 공급

임대 산업단지 재임대도 금지 ... 어길땐 과태료

산업용 부지의 가격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제한된다. 임대산업단지내의 재임대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제한과 임대 금지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

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가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산업단지는 세제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주계약을 바꾸지 않고 임의의 회사나 대표자 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벌칙을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

5천㎡미만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천㎡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 롯데백화점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 협약'

중소 제품·농특산물 판로 개척

광주시와 롯데백화점 등이 광주 중소기업 제품·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주)롯데쇼핑(백화점)광주점,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 협력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매장에

광주지역 우수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지역 농산물과 우수 공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3개 기관은 지역 중소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재래시장, 중소유통업체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 유통관리·운영 기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조이 여행사</p> <p>여행 전문 업체</p> <p>문의: 234-3923</p> <p>일본 - 카니온</p> <p>대만: 3박4일(45H) 359,000</p> <p>대만: 4박5일(55H) 389,000</p> <p>대만: 5박6일(65H) 419,000 ~ 469,000</p> <p>대만: 6박7일(75H) 1,390,000</p> <p>대만: 7박8일(85H) 1,390,000</p> <p>대만: 8박9일(95H) 289,000</p>	<p>일본 - 카니온</p> <p>대만: 3박4일(45H) 549,000</p> <p>대만: 4박5일(55H) 699,000</p> <p>대만: 5박6일(65H) 849,000</p> <p>대만: 6박7일(75H) 999,000</p> <p>대만: 7박8일(85H) 1,149,000</p> <p>대만: 8박9일(95H) 1,299,000</p>	<p>일본 - 카니온</p> <p>대만: 3박4일(45H) 549,000</p> <p>대만: 4박5일(55H) 699,000</p> <p>대만: 5박6일(65H) 849,000</p> <p>대만: 6박7일(75H) 999,000</p> <p>대만: 7박8일(85H) 1,149,000</p> <p>대만: 8박9일(95H) 1,299,000</p>	<p>일본 - 카니온</p> <p>대만: 3박4일(45H) 549,000</p> <p>대만: 4박5일(55H) 699,000</p> <p>대만: 5박6일(65H) 849,000</p> <p>대만: 6박7일(75H) 999,000</p> <p>대만: 7박8일(85H) 1,149,000</p> <p>대만: 8박9일(95H) 1,299,000</p>
---	--	--	--